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글서예 | 한시 | 한문서예 | 수채화 | 한국화 | 민화 | 인두화

| 전시기간 | 2022.12.06(화) ~ 12.08(금) (3일간)

| 전시장소 |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

| 후 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글서예
한 시
한문서예
수채화
한국화
민화
인두화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임인년 한해도 이제 카렌다 한 장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한해동안의 창작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배움을 얻고 싶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예술적 재능을 찾아보고 싶어 다가온 작품활동들이 그동안 지도 강사님들의 열정과 수강생들의 땀으로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작품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 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김진하 군수님과 오세만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토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군민 모두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문화가 꽃피는 양양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壬寅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군민들과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양 문 화 원 장
박 상 민





한글서예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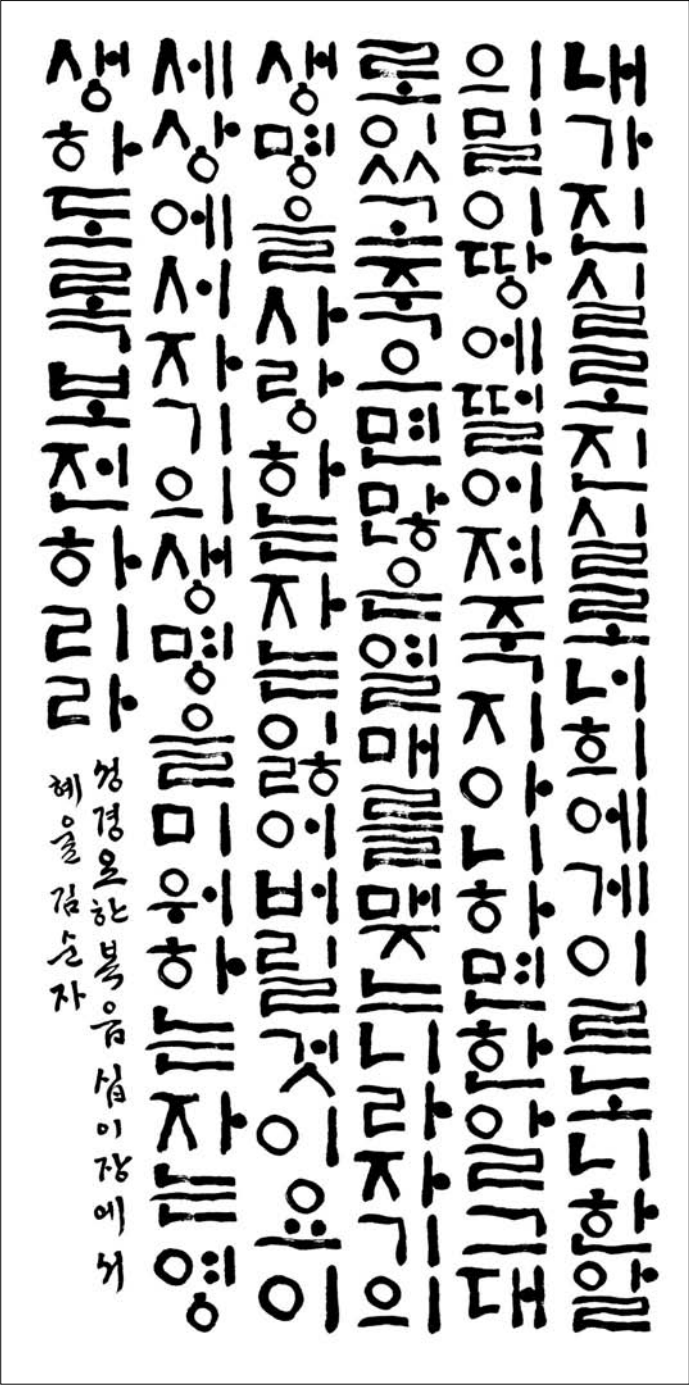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자필전



• 지도강사 : 김광희

| | | | | | | | |
|---------|-----|-----|------|-----|-----|-----|-----|
| • 수료자 : | 김순희 | 김주희 | 노복현 | 심정희 | 이기순 | 이두순 | 이재각 |
| | 전선주 | 정선아 | 전성호 | 김순자 | 김영순 | 로재창 | 박경숙 |
| | 박상혁 | 심현순 | 양마루치 | 엄윤옥 | 이주옥 | 장영랑 | 조일배 |
| | 홍의태 | | | | | | |





요한복음12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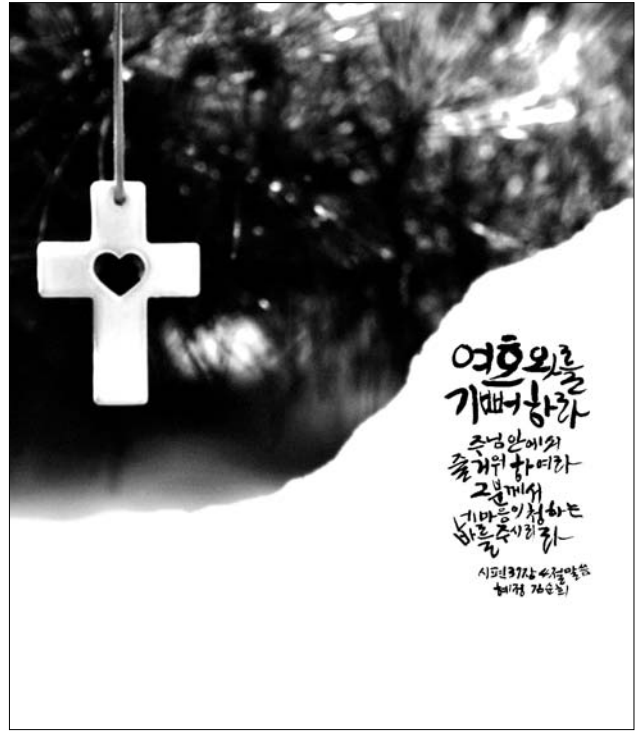
평화



헤을 김순자



성경말씀 시편에서



성경 시편 37:4



혜정 김 순 희



거룩한 부처님

어린 시절의 소원을 장성해 서 못이 났이나 영
 광이 원력 무런 바라지 못 앞 닦아 네 기이 할 재주
 영이 너의 일 닦아 못 없지 만 마의 마의 면 면 면 면 면
 나기 마련 일 복희 구미 미이 미기 미의 위 수미 어지 내
 가 팔이 팔 팔 팔이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생각 일수가 구위 팔 팔 팔 수 있다 한 작 수를 에 잠 시 라
 너가 초미 일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운곡선생 시



고요 김 영 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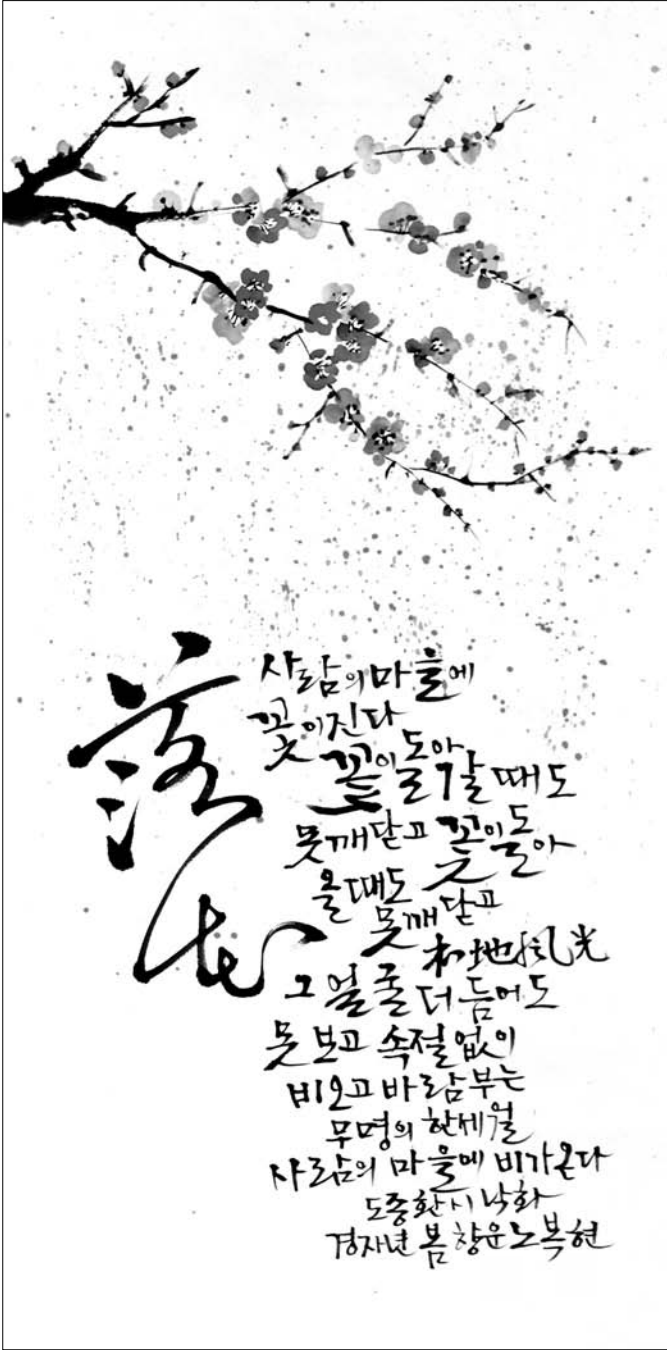
深鎖赤霞楓葉嶺平鋪白雪荻花洲
 菊叢寂寞金葩嫩唯有東籬獨未秋

運公先生詩
 雲곡원현석선생시
 深鎖赤霞楓葉嶺平鋪白雪荻花洲
 菊叢寂寞金葩嫩唯有東籬獨未秋

운곡선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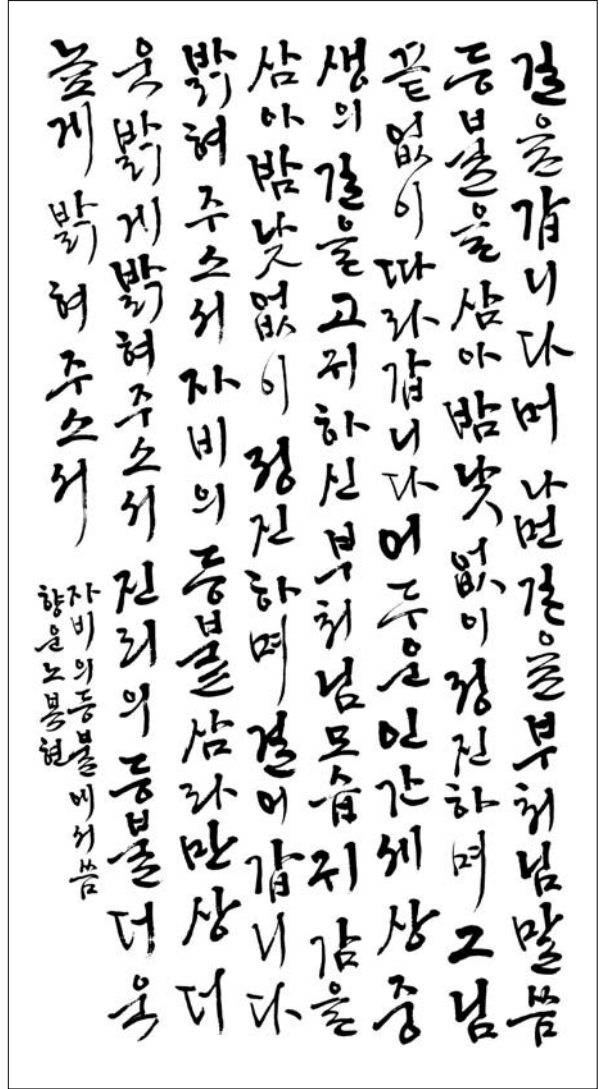


혜림 김 주 희



사람의 마을에
 꽃이 핀다
 꽃이 피는 그때도
 꽃이 피는 그때도
 꽃이 피는 그때도
 꽃이 피는 그때도
 그 일곱 더듬어도
 못 보고 속절없이
 비오고 바람부는
 무명의 한세월
 사람의 마을에 비가 온다
 도종환시 낙화
 경재년 봄 향운노복현

도종환시 낙화



자비의 등불을 비키세요
 향운노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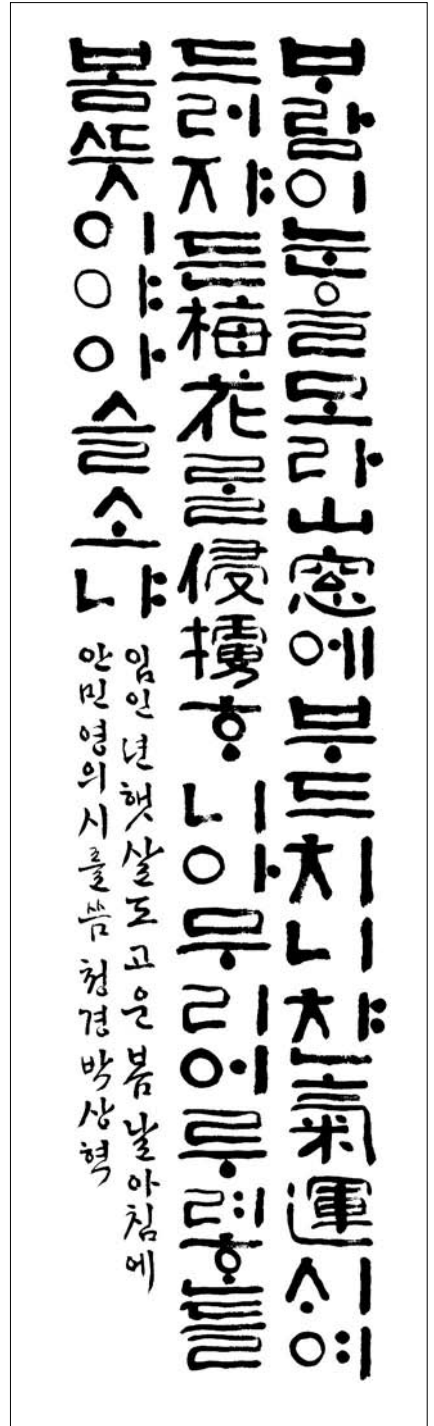
오늘을 위한 기도



향운 노복현



부식들의 불꽃



안민영의 시조



청경 박상혁



눈명하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단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니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법정스님 말씀
 여울 심현순

법정스님말씀

바다에 물바람이여
 이 큰 섬을 천년 화창한 봄날
 시베리아 찬승을 삼가 가려 쓰며
 여울 심현순

여울 심현순 시
 바다에 물바람이여
 이 큰 섬을 천년 화창한 봄날
 시베리아 찬승을 삼가 가려 쓰며
 여울 심현순

한용운 시



여울 심현순



꽃피면 날 생각해고 날 밝으면 늘 생각해
 고 꽃피자 날 밝자 늘 얼음 벗 생각해고
 언제나 꽃아래 식 벗과 玩月長醉 하려노
 이 책이 십이년 도저을 이정보의 시프를 쓰라 덕현

심



덕현 양마루치



욥기8장7절



성경말씀



은별 이 기 순



행복한 날

가을의 향기를 입과 귀로 느끼고
 가을의 단풍이 어젯밤의 가을
 단풍이 하얀 가을이 되어서
 가을의 향기를 입과 귀로 느끼고
 가을의 단풍이 어젯밤의 가을
 단풍이 하얀 가을이 되어서
 가을의 향기를 입과 귀로 느끼고
 가을의 단풍이 어젯밤의 가을
 단풍이 하얀 가을이 되어서

운곡 원천석선생 시



참빛 이주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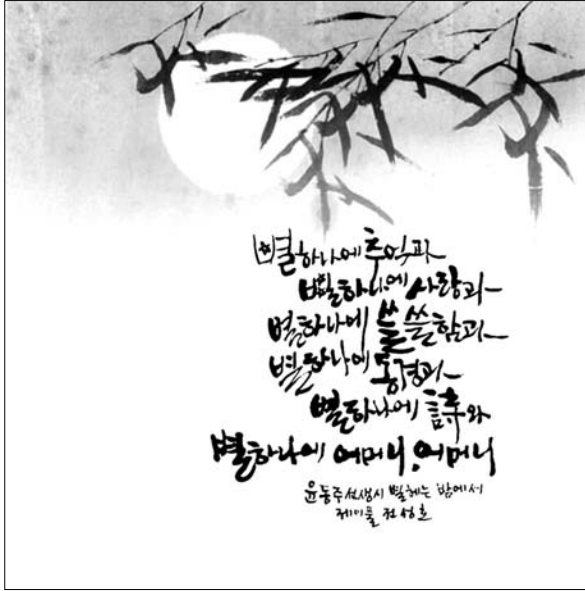
옹기8장7절

임인년츠가을날에운곡천생시르를봄
 하늘권선주
 내시작은나
 미안한것
 하나
 네나주는
 삼하
 차대하리라
 옹기8장7절
 임인이심이면
 겨울
 하늘
 권선주

운곡선생 시



하늘 전 선 주



표



원천석선생시



제이플 전 성 호

유리하다니 보만 하지 말고 불리하다니 비굴
 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대니 험악 행동을 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쾌할 때 외과감의 행동학의 병어리처럼 침
 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
 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이 자부심을 갖기 누운
 불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슬퇴 조일배

채근담에서



슬퇴 조일배

어림시절의 수위엔 강성해서 못이렇이나 영
 행에 위판파터마라지부안았네기이한재주
 없으니 신엔가부업지만마음바르면패를만
 나니마련엔세히가베어리니메어숨어지내
 니팔에편함에포행부행개편나결안네애갖
 생항에부가안행수있고한친순에집시라
 면부집에포행가하네

은곡원천석선생의 시에가쓰
 가목홍의태

운곡선생시



가목 홍 의 태



한시 교실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자물전



• 지도강사 : 이종우

• 수료자 : 김경일 김기송 김덕주 김무풍 김문정 김윤래 김인숙
김준호 김형래 박문희 박상형 안병대 양동창 이성복
최종학 추종삼 황광수 황재권



題：襄陽松蕈爭秋

| | | |
|---------|-----------|--------------------------|
| 白帝清音四域聞 | (백제청음사역문) | 가을의 맑은소리 사방에서 들리는데 |
| 爭秋吉慶旣秋分 | (쟁추길경기춘분) | 가을을 다투는 경사라 벌써 추분이구나. |
| 林楓灼灼松蕈彩 | (림풍작작송심채) | 송이의 빛깔에 수풀의 단풍이 빛나고 |
| 野菊妖妖稻穗紋 | (야국요요도수문) | 벼 이삭 무늬에 들국화는 아리따다. |
| 鄉里村家盈藥笑 | (향리촌가영예소) | 향리의 촌가에는 웃음꽃이 가득하고 |
| 街邊食店溢香醺 | (가변식점일향훈) | 거리의 식당에는 향 내음이 넘쳐난다. |
| 奇珍秘味寰區最 | (기진비미환구최) | 기이한 보배 신비한 맛 천하의 최고라 |
| 此賴襄陽共悅欣 | (차뢰양양공열흔) | 이에 힘입은 양양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기네. |



지도강사 又泉 李 鍾 寓

題：襄陽松茸爭秋

| | | |
|---------|-----------|-----------------------------|
| 襄陽特産最多聞 | (양양특산최다문) | 양양의 특산물이 최고라고 소문이 났으니 |
| 祕奧松茸異境分 | (비오송심니경분) | 비밀하고 오묘한 송이는 다른 곳과 분명히 다르다. |
| 綠葉丹楓佳染色 | (녹엽단풍가염색) | 푸른 잎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
| 黃雲曠野燦波紋 | (황운광야찬파문) | 벼가 누린 광야에는 찬란한 파문이 이네. |
| 簡易炮熬甘眩惑 | (간이포오감현혹) | 간편하고 쉽게 굽고 볶은 단맛에 현혹되고 |
| 天然郁馥感情醺 | (천연육복감정훈) | 천연의 짙은 향기에 감정이 취하였도다. |
| 嘉賓味覺無限歎 | (가빈미각무한탄) | 반가운 손님들은 미각으로 무한히 찬탄하고 |
| 地域繁榮活氣欣 | (지역번영활기흔) | 지역은 번영의 활기찬 기운으로 기쁨이 넘치도다. |

(社)韓國漢詩協會襄陽支會長
南岡 梁東昌



題：襄陽松茸爭秋

| | | |
|---------|-----------|-------------------------|
| 爭秋步步四山聞 | (쟁추보보사산문) | 가을을 다투는 발걸음 온산에서 들리고 |
| 競賣松茸等級分 | (경매송심등급분) | 경매로서 송이를 등급으로 분리하네. |
| 整整囊中充寶顆 | (정정낭중충실과) | 배낭 속에는 가지런하게 보배 꼭지 가득하고 |
| 芬芬峽裏發錢紋 | (분분협리발전문) | 골짜기에는 향내 풍기는 돈 무늬 피어나네. |
| 郎君嶺頂殊珍癖 | (랑군령정수진벽) | 낭군은 영마루에서 진귀한 보배에 반하고 |
| 主婦廚房特饌醺 | (주부주방특찬훈) | 주부는 주방에서 특별한 안주에 취하네. |
| 香滿持箱皆莞爾 | (향만지상개완이) | 향이 가득한 상자 들고 모두 빙그레 웃으니 |
| 襄陽素節快心欣 | (양양소절쾌심흔) | 양양은 가을철에 마음이 기뻐 유쾌하네. |



桂堂 金慶一

題：襄陽松茸爭秋

| | | |
|---------|-----------|----------------------------|
| 松茸產地藉聲聞 | (송심산지자성문) | 송이 산지의 명성이 자자하니 |
| 競賣形容等級分 | (경매형용등급분) | 경매에 의하여 모양과 생김새를 등급으로 나눈다. |
| 首態圓圓童子樣 | (수태원원동자양) | 머리 모양은 둥글둥글하고 동자의 모양이고 |
| 幹源皓皓神仙紋 | (간원호호신선문) | 줄기의 바탕은 희고희어서 신선의 무늬니라. |
| 商街滿客千金得 | (상가만객천금득) | 상가는 손님이 가득하여 천금의 수익을 올리고 |
| 僻谷佳香萬里醺 | (벽곡가향만리훈) | 벽곡에서 풍기는 좋은 향기는 먼 곳까지 풍기네. |
| 名品豐年民益善 | (명품풍년민익선) | 명품 송이 많이 생산되니 백성의 마음이 넉넉하고 |
| 襄陽郡運大欣欣 | (양양군운대흔흔) | 양양의 군운도 크게 번성하리라. |



牛步金基松

題：襄陽松蕈爭秋

| | | |
|---------|-----------|-----------------------------|
| 祝祭襄陽訪所聞 | (축제양양방소문) | 양양 축제 행사 소문 듣고 방문하니 |
| 蕈香楓色競秋分 | (심향풍색경추분) | 버섯은 향기로 단풍은 색깔로 추분에 다투고 있네. |
| 松林燦爛千金顆 | (송림찬란천금과) | 송림에는 찬란한 천금 짜리 꼭지가 있고 |
| 山峽芬芬萬寶紋 | (산협분분만보문) | 산협에는 향기 나는 온갖 보배의 무늬로다. |
| 似笠圓冠眞味發 | (사립원관진미발) | 둥근 관 삿갓 같고 참된 맛이 일어나고 |
| 如菁直幹異香醺 | (여청직간이향훈) | 곧은줄기 무 같고 특이한 향에 취한다. |
| 自然貴物高姿見 | (자연귀물고자견) | 자연 귀물의 고상한 모습을 보며 |
| 遊覽人人笑噓欣 | (유람인인소각흔) | 유람하는 사람마다 꺄꺄 웃으며 기뻐하네. |



岷泉 金 惠 柱

題：襄陽松茸爭秋

| | | |
|---------|-----------|----------------------------|
| 松茸季節大豐聞 | (송심계절대풍문) | 송이 철에 대풍이라 들리니 |
| 買賣爭秋玉石分 | (매매쟁추옥석분) | 사고 팔고 하면서 다투는 가을에 옥석을 가르네. |
| 天賜珍奇充鈺顆 | (천사진기충옥과) | 하늘이 준 진기한 보물 난알 가득하고 |
| 自然麓好漲錢紋 | (자연록호발전문) | 자연의 좋은 산기슭에 돈무늬 번지네. |
| 禿頭草笠佳香發 | (독두초립가향발) | 대머리에 초립 쓴 것 같은데 좋은 향기 발생하고 |
| 直幹蔓菁絕味醺 | (직간만청절미훈) | 곧은줄기에 순무 같은 것이 기막힌 맛에 취하네. |
| 所得農家纏帶溢 | (소득농가전대일) | 농가 소득으로 전대가 넘쳐나고 |
| 襄陽貴物品評欣 | (양양귀물품평흔) | 양양 귀물 품평하니 기쁘기만 하네. |



東林 金 茂 豊

題：願雪嶽五色索道建設

| | | |
|---------|-----------|--------------------------|
| 絕勝襄陽秀大東 | (절승양양수대동) |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절승지 양양에 |
| 徹天索道懇望同 | (철청삭도간망동) | 하늘에 사무치도록 삭도를 간절히 바란다. |
| 靈山建設隨人海 | (령산건설수인해) | 영산에 건설하니 인해가 따르고 |
| 祕境加工起國風 | (비경가공기국풍) | 비경에 가공하니 국풍이 일어난다. |
| 官吏堂堂傾死力 | (관리당당경사력) | 관리는 당당하게 사력을 기울이고 |
| 鄉民烈烈取成功 | (향민열열취성공) | 향민은 열렬하게 성공을 이루리다. |
| 老齡障礙須期待 | (노령장애수기대) | 노령인 장애인 모름지기 기대하는 바이니 |
| 皆主名區美化隆 | (개주명구미화용) | 모두 주인인 명구로 극진히 아름답게 꾸미자. |



蒼波 金 允 來

題：襄陽松茸爭秋

| | | |
|---------|-----------|-------------------------|
| 松茸季節大豐聞 | (송심계절대풍문) | 송이의 계절 대풍이라 하니 |
| 競賣爭秋玉石分 | (경매쟁추옥석분) | 가을을 다투는 경매로 옥석을 가르네. |
| 整整囊橐充寶顆 | (정정낭탁충보과) | 차곡차곡 낭탁에는 보물덩어리 채워졌고 |
| 芬芬峽嶂發錢紋 | (분분협비발전문) | 향기 나는 산비탈에는 돈 문이 피어나네. |
| 如頭草笠佳香發 | (여두초립가향발) | 초립을 쓴 머리 같은 송이 가향을 발산하고 |
| 似幹蔓菁絕味醺 | (사간만청절미훈) | 순무의 줄기 같은 송이의 절미에 취하네. |
| 天惠襄陽餘裕地 | (천혜양양여유지) | 천혜의 양양은 여유로운 땅 |
| 自然貴物萬人欣 | (자연귀물만인흔) | 자연의 귀물에 만인이 즐기네. |



論娥 金 仁 淑

題：願雪嶽五色索道建設

| | | |
|---------|-----------|-----------------------|
| 雪嶽巍巍冠大東 | (설악외외관대동) | 드높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
| 吾曹索道一心同 | (오조삭도일심동) | 우리들은 삭도를 일심으로 동의하노라. |
| 郡民宿願衝天勢 | (군민숙원충천세) | 군민의 숙원이 하늘 찌를 기세이고 |
| 萬姓希求起國風 | (만성희구기국풍) | 백성이 희구함에 국풍이 일어나네. |
| 環境親和傾總力 | (환경친화경총력) | 환경친화에 모든 힘을 한 곳에 기울이고 |
| 自然保護盡多功 | (자연보호진다공) | 자연보호에 많은 공을 다 쏟아야지. |
| 順調本事能成就 | (순조본사능성취) | 순조롭게 본 공사가 능히 성취되면 |
| 賴此襄陽永遠隆 | (뢰차양양영원용) | 힘입은 양양은 오래도록 융성하리라. |



擧朗 金俊鎬

題：襄陽松茸爭秋

| | | |
|---------|-----------|--------------------------|
| 爭秋松茸市中間 | (쟁추송이시중문) | 쟁추하는 송이 시중에서 들리니 |
| 狀態優良等級分 | (상태우량등급분) | 상태에 따라 우량품으로 등급을 나누게 되네. |
| 價格如金珠寶貨 | (가격여금주보화) | 가격은 금값과 같아 구슬 보화요 |
| 像形似傘錦花紋 | (상형사산금화문) | 생김새는 우산과 같고 비단 꽃무늬일세. |
| 遊人設宴心完快 | (유인설연심완쾌) | 유인들은 잔치를 베풀어 마음이 완쾌해지고 |
| 賞客施肴酒半醺 | (상객시효주반훈) | 상객들은 안주를 차리어 술에 반은 취하였지. |
| 樵老山豐歡喜裏 | (초로산풍환희리) | 나무꾼들은 산풍이 들었다고 환희하면서 |
| 服勤妄作最高欣 | (복근망작최고흔) | 힘든 줄도 모르고 최고로 기뻐하네. |



看山金亨來

題：襄陽松茸爭秋

| | | |
|---------|-----------|----------------------------|
| 襄陽松茸最高聞 | (양양송이최고문) | 으뜸으로 알려진 양양 송이가 |
| 特産爭秋已十分 | (특산쟁추이십분) | 독특한 산물로 가을을 다투는데 부족함이 없네. |
| 谷迦佳楓華有繡 | (곡소가풍화유수) | 골짜기 따라 좋은 단풍 수 놓은 듯 화려한데 |
| 山生貴物儼無紋 | (산생귀물엄무문) | 산에서 나는 귀물이라 무늬 없어도 의젓하다. |
| 飪烹設饌餘芳快 | (임팽설찬여방쾌) | 잘 삶아 만든 반찬 좋은 냄새 기분 좋고 |
| 撻裂施肴郁馥醺 | (차열시효육복훈) | 손으로 찢어 먹는 안주 짙은 향기에 취하네. |
| 他地同流那較本 | (타지동류나교본) | 타지와 같은 종류 어찌 근본을 견주리 |
| 天香別味莫停欣 | (천향별미막정흔) | 타고난 향 독특한 맛에 즐거움을 멈출 수 없네. |



笑海 朴文熙

題：襄陽松蕈爭秋

| | | |
|---------|-----------|--------------------------|
| 淅瀝秋聲遠近聞 | (석력추성원근문) | 쓸쓸한 가을 소리 원근에서 들리는데 |
| 西山接踵早晨分 | (서산접종조신분) | 이른 새벽에 서산으로 계속 왕래하는구나. |
| 馨香散發松蕈顚 | (형향산발송심과) | 송이버섯에서는 향기가 산발하는데 |
| 潔露凝生石耳紋 | (결로응생석이문) | 석이버섯에는 깨끗한 이슬 맺혔구나. |
| 賞玩來賓風味興 | (상완래빈풍미흥) | 구경하는 내빈은 좋은 맛에 흥이 나고 |
| 歡遊訪客臭芬醺 | (환유방객취분흔) | 환유하는 손님은 냄새와 향기로움에 취하네. |
| 珍奇寶物襄陽擘 | (진기보물양양벽) | 양양에 으뜸인 희귀하고 기이한 보물을 |
| 貴買持箱莞爾欣 | (기매지상완이흔) | 귀히 산 상자 들고 빙그레 웃으며 기뻐한다. |



士川 朴 相 亨

題：襄陽松茸爭秋

| | | |
|----------|-----------|-----------------------|
| 襄陽松 栢大豐聞 | (양양송이대풍문) | 양양 송이 대풍이라 들리는데 |
| 祝祭人波五色分 | (축제인파오색분) | 축제 인파로 오색을 나누네. |
| 肥胴菟翁充店鋪 | (비동수옹충점포) | 살찐 몸체 모은 노옹 점포마다 채웁어요 |
| 圓頭採者賣場紋 | (원두채자매장문) | 둥근 머리 채취자는 매장의 무늬로다. |
| 賞客味迷歡喜幕 | (상객미미환희막) | 상객들은 맛에 반해 자리에서 환희하고 |
| 嘉賓香醉恒時醺 | (가빈향취항시훈) | 귀빈들은 향기에 항시 취하네. |
| 林產資源餘裕處 | (임산자원여유처) | 임산자원이 여유로운 곳이라 |
| 自生貴物好評欣 | (자생귀물호평흔) | 자생하는 귀물 호평이 좋아. |



芝香 李成福

題：襄陽松茸爭秋

| | | |
|---------|-----------|-------------------------|
| 爭秋奔走自晨間 | (쟁추분주자신문) | 가을을 다투는 분주함 새벽부터 들리는데 |
| 競賣松茸大喜分 | (경매송심대희분) | 송이의 경매로 큰 기쁨 나눠주네. |
| 含露千金盈袋顆 | (함로천금영대과) | 이슬에 젖은 천금 짜리 자루에 그득하고 |
| 打霜百草熟楓紋 | (타상백초숙풍문) | 서리 맞은 온갖 풀은 단풍 무늬에 익었네. |
| 來賓玉饌佳香魅 | (래빈옥찬가향매) | 내빈은 좋은 음식의 향기에 매혹되고 |
| 賞客珍肴絕味醺 | (상객진효절미훈) | 상객은 진귀한 안주의 맛에 취하는구나. |
| 高價持箱人莞爾 | (고가지상인완이) | 고가로 산 상자 든 사람 빙그레 웃으니 |
| 襄陽素節一同欣 | (양양소절일동흔) | 양양의 가을철에 모두가 기뻐하는구나. |



瑞潭 崔鍾學

題：願五色索道建設

| | | |
|---------|-----------|-------------------------|
| 莊嚴雪嶽冠關東 | (장엄설악관관동) | 장엄한 설악산은 관동에서 으뜸이니 |
| 索道襄陽願共同 | (삭도양양원공동) | 양양에 삭도 건설은 다 함께 원하노라. |
| 地域宿題成早速 | (지역숙제성조속) | 지역의 숙제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
| 住民惠澤實均蒙 | (주민혜택실균몽) |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것이다. |
| 靑峯頂閣威容歎 | (청봉정각위용탄) | 대청봉 정류장의 위용에 감탄하니 |
| 蒼昊鳶車傑氣功 | (창호연차걸기공) | 창공에서 솔개미차 뛰어난 기풍의 공이로다. |
| 佳景名區當復舊 | (가경명구당복구) | 가경에 명구로 당연히 복구될 것이니 |
| 觀光發展活豐隆 | (관광발전활풍용) | 관광 발전으로 주민 생활이 풍성하리라. |



冠山 秋 鍾 三

題：襄陽松茸爭秋

| | | |
|---------|-----------|------------------------|
| 濃馥松茸吉兆聞 | (농복송심길조문) | 향기 짙은 송이의 길한 조짐 들리는데 |
| 襄陽特産競秋分 | (양양특산경추분) | 양양의 특산물 춘분절에 다투네. |
| 背囊整整盈金顆 | (배낭정정천금과) | 배낭에는 가지런히 금 알이 가득하고 |
| 峽岬芬芬滿玉紋 | (협비분분만옥문) | 산협에는 향기로운 구슬 무늬 가득하네. |
| 民衆尋場香氣發 | (민중심장향기발) | 민중이 찾은 장터 향기가 일어나고 |
| 客群觀菊郁氛醺 | (객군관국욱분훈) | 손님들 국화 구경하며 향기에 취하네. |
| 古今別物吾鄉擘 | (고금별물오향벽) | 예나 지금이나 별물 우리 고향이 으뜸인데 |
| 山採多量貴寶欣 | (산채다량귀보흔) | 다량의 귀한 보배 따면서 기뻐하네. |



靑山 黃光洙

題：襄陽松茸爭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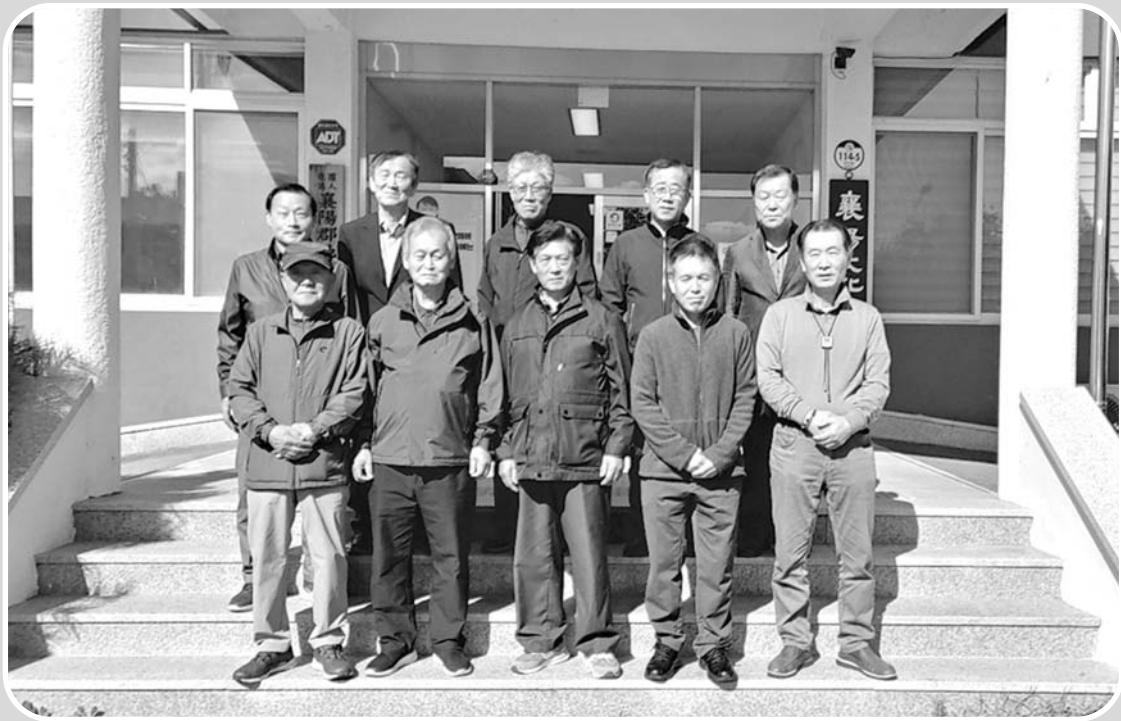
| | | |
|---------|-----------|------------------------|
| 襄陽特品古來聞 | (양양특품고래문) | 양양 특산품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소문 |
| 發郁松茸好氣分 | (발육송심호기분) | 송이에서 특유 냄새 피어나니 호기 분하고 |
| 屯峙高樓飄幟影 | (둔치고루표치영) | 둔치 내의 높은 루에 기치 영상 나부끼고 |
| 市街沿道起波紋 | (시가연더기파문) | 시가에의 연도에는 파도 무늬 일어난다. |
| 偷閑騷客成詩詠 | (투한소객성시영) | 선비들은 짬을 내어 글을 지어 읊음이고 |
| 玩賞遊人把酒醺 | (완상유인파주훈) | 구경하는 유인들은 술잔 들고 얼큰이라. |
| 天賜珍奇豐裕裏 | (천사진기풍유리) | 하늘이 내린 귀중한 것 풍년들어 넉넉하고 |
| 自然寶庫總歡欣 | (자연보고총환흔) | 자연에의 보배창고 모두다가 기뻐하네. |



石井 黃在 權



한문서예 교실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자물전

• 지도강사 : 함연호

• 수료자 : 김기송 김덕주 박상율 신동우 안병돈 윤정희 이광우
이근천 전성우 전옥병 최용일 김경희 윤지환 홍의태
송진영 민남숙 장명한



蒼花被古竹雪映雪有保
 全得一宵夜氣升氣杯中吟
 風弄月躲鞋了字文紅塵

壬寅夏 青松 咸衍鎬



지도강사 靑松 咸衍鎬

終宵風雨撼寒扉客
館孤燈照壁微却到
天明難早發郵僮相
語怕霑衣

錄石樓先生詩一首
牛步金基松



牛步金基松

春陰不散鳴幽禽到
處那堪無我吟指點
竒觀頻舉目晴川芳
草情難禁

錄耘谷先生詩一首
峴泉金惠柱

윤곡선생시



峴泉金惠柱

溪路逶迤綠封深
 珍禽相喚送嘉音
 此中乘傳猶堪樂
 唯恨憂民未展心

錄陽村先生詩一首
 魯田朴商律

양촌선생시



魯田朴商律

清磬一聲初下壇更
 添新 若依欄干舊雨
 纔晴輕涼動出簾窗
 氣水易寒

錦萬海先生訪一首
 忠岩申東禹

만해선생 시



忠岩 申東禹

厭 即 酒 畫
 淨 傾 來 樓
 襟 歎 看 東
 宜 器 急 畔
 錄 退 漢 先 生 詩 一 首
 光 亭 吳 庚 煥
 侶 雨 俯
 聲 時 蓮
 喧 溜 池
 不 滿 罷

만해선생 시



光亭 吳庚煥

故園歸路渺無窮
 水繞山迴復幾重
 望在毒時愁更毒
 望在高峯上最高

三峰先生重九詩
 昭云尹貞姬

삼봉선생 시



昭云 尹貞姬

半壁孤燈獨不眠
 蒼葭玉露曲江邊
 心懸故國傷多病
 跡滿殊鄉感逝年

錦勉庵先生詩一首
 裕哲尹智煥

면암선생시, 흑산추회



裕哲尹智煥

學道即無著隨緣到處遊暫
 辭青鶴洞東玩白鷗沙身世
 雲千里乾坤海一頭草堂聊
 寄宿梅月是風流

錄宗谷先生詩一首
 松湖李光雨

을곡선생 시



松湖 李光雨

雪嶽首節上翠波雄姿真景
 世百稀言聲大峻山羊走絕巒
 子約玉和飛玉聲多嘯歌法
 界奇巖空影畫之樞高峯秘
 境皆心醉清興笑辭一詠歸

乙未年秋雪嶽春坡李根千自吟

등설악 자작시



春坡 李 根 千

煙鎖瑤空鶴未歸桂
 峯陰裏閑珠扉溪頭
 盡日神靈雨滿地香
 雲濕不飛

鄒許蘭雪軒詩一首
 峴齋崔容一

하난설한 시



峴齋 崔容一



수채화 교실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자물전



• 지도강사 : 김영덕

• 수료자 : 권기복 스즈끼나호꼬 심정순 양순옥 양신자 오은영
 윤현숙 우정임 전인경 주호영 홍영희 김미동 김영희
 김인규 심정희 유철호 임애원 정선아 주화진 최지연
 송화훈





갯벌체험



지도강사 김 영 덕



설레임



권기복



자작나무사랑



김 미 동



광장이있는 풍경



김영희



대어를 꿈꾸며



김 인 규



파도를 넘어



송 화 훈



해질녘



스즈끼 나호코



데이트



심정순



문돌



심정희



울산바위



양 순 옥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



양 신 자



바다 1

오 은 영





오지마을



우정임



조약돌



유 철 호



어부의 하루



윤 현 숙



겨울이 오는 소리



임 애 원



어느 맑은 날



전 인 경



동자스님



정 선 아



정적 오후



주 화 진



봄소풍



주 효 영



오지마을



최지연



겨울이야기



홍 명 화



한국화 교실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자랑전



• 지도강사 : 조정승

• 수료자 : 김민심 김순희 송화훈 양신자 이근천 최종봉 최혜경
김영미 김영한 박광애 신동우 안삼영 어정수 유철호
윤길중 윤정희 이상세 황문복





조도소견 (장지, 수묵담채, 15호, 2022)



지도강사 조 정 승



낙산사 홍련암 (순지,수묵담채,10호,2022)



김영미



비폭운곡 (수묵담채, 20호, 2022)



김영한



낙산 송림 (한지, 수묵담채, 15호, 2022)



박 광 애



물레 산가정담 (순지,수묵,10호,2022)



총암 신 동 우



상모 (한지, 수묵담채, 15호, 2022)

안 삼 영





설악산 귀면암 (순지,수묵담채,50호,2022)



예향 어 정 수



성하의 계곡 (순지, 수묵담채, 15호, 2022)



예산 유철호



낙산사 의상대 (순지, 수묵담채, 20호, 2022)



박양 윤 길 중



영금정의 파도 (순지, 수묵담채, 15호, 2022)



소은 윤 정 희



수옥폭포 (순지, 수묵담채, 15호, 2022)



태강 이 상 세



화암사 수바위 (순지, 수묵담채, 15호, 2022)



황 문 복



인구 포매리 부부송 (한지,수묵담채,8호,2022)



김민심



들국화 (순지, 수묵담채, 10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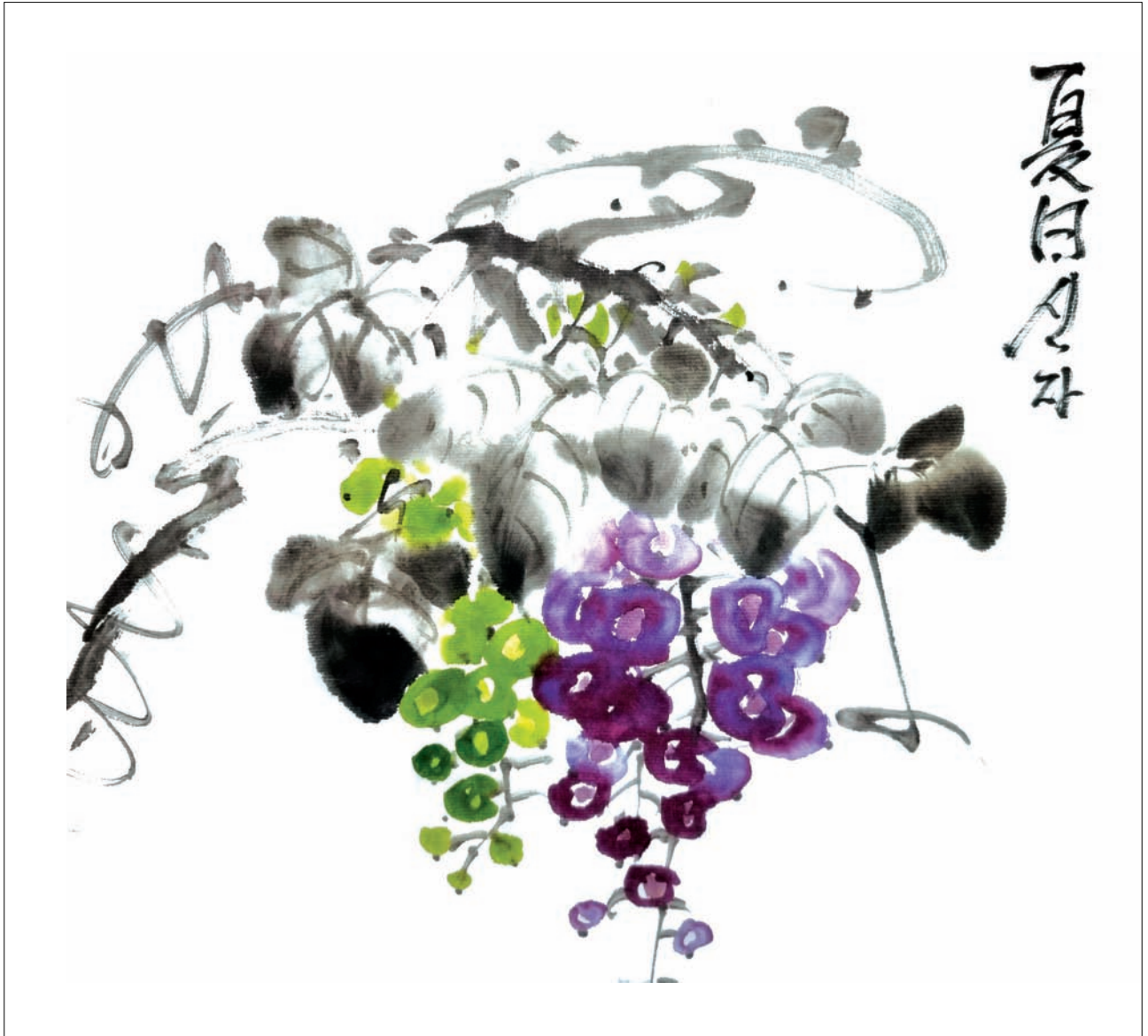
송 화 운



비폭 (한지, 수묵담채, 변형1호, 2022)



이근천



포도 (한지, 수묵담채, 8호, 2022)



양 신 자



봄날 (순지, 수묵담채, 15호, 2022)



원재 최 종 봉



언덕위에...(한지,수묵담채,10호,2022)



최혜경



민화 교실

2022년도 양양문화원 민화학교 수강생자물전



• 지도강사 : 정복자

• 수료자 : 고민숙 김경희 김금희 김순이 김이남 현담스님 노복현
이영주 장영랑 정보람 천미랑 최현식 홍순혜





십장생도



지도강사 정복자



화조도



고민숙



달과 매화



김 경 희



연화도



김금희



책가도



김 순 이



미인도



김 이 남



관동팔경



노복현



기명절지도



이 영 주



연화도



장영랑



모란도



정 보 람



모란도



천미랑



일월오봉도



최 현 식



연화도



현담스님



연화도



홍 순 혜



인두화(우드버닝)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자물전

• 지도강사 : 조혜성

• 수료자 : 김무형 김순희 남기란 배재권 오현주 이기순 이세범
장미경 조현숙





구스타프크림트 키스



지도강사 윤정 조 혜 성



김홍도_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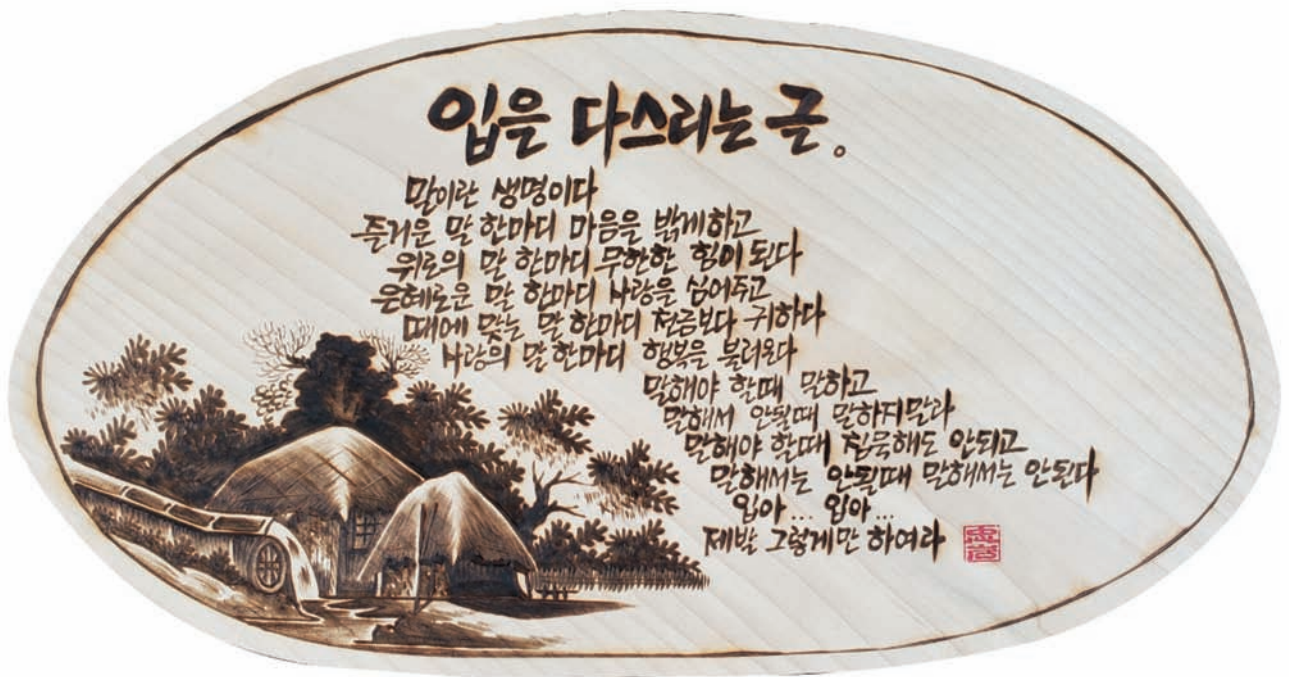
김 순 희



조르주 쇠라_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남 기 란



입을 다스리는 글



신 동 우



신윤복_홍루대주



오 현 주



김흥조_길쌈



이 기 순



김흥도_씨름



장 미 경



신윤복_월하정인



대해스님



부엉이



김 무 형



꽃



배재권



꽃



이 세 범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발행일 : 2022년 12월

발 행 : 양양문화원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2022

